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8월

선교편지 제 9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이곳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뉴스는 '마약'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그로 인해 붓물처럼 터지는 사건, 사고 소식일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더불어 상상을 초월하는 마약과 관련된 강력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긴장감이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도로 곳곳에서 여유롭게 근무를 했던 그 많던 경찰들의 모습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총을 들고 마약 소굴로 의심되는 곳을 급습하고 있음을 매일 저녁 TV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에 관해서는 경찰에게 막강한 공권력을 위임하고, 절차를 통한 사법처리 보다는 속전속결로 마약 현장에서 뿌리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TV로 경찰과 마약범들의 살벌한 총격전 실황과 다수의 사상자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현장을 가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마약 중독자가 약 1 천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1억이 되는 필리핀 인구 중에 열명 중 한 명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는 '디고스'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마약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의 비율은 평균치 보다도 훨씬 더 높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연일 최고 숫자를 갱신하는 중에 최근 한 달여 동안 3백명 이상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사살 되고, 또한 4 천여명 이상이 체포 되었다고 현지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거리낌 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약 14만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자수를 했고, 새롭게 급조된 마약 퇴치 재활원에 수용 되어 재활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이 꽤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약 용의자를 사살이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나 관련법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부터, 한꺼번에 많은 수의 마약 중독자들을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나 재활원에 수용됨에 따라 도리어 마약 관련 범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혐의가 적은 마약 용의자는 일시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으나, 비리 경찰이나 공무원과 결탁된 마약의 큰 손들은 안전하게 숨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려 가운데에서도 만연한 마약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이 병들어 가고, 나라의 미래와 존립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초법적인 극약 처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디고스내에 위치한 '마띠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위한 정기 방문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지난 6월 교도소 책임자로부터 당분간 교도소 방문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 재소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외부 방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 그 이유였습니다.

마띠 교도소에서 사역을 시작한 6년전 초기에 재소자 수가 약 170여명 정도였는데, 6 여년간 계속 해서 인원이 증가하더니 열악한 동일 시설에 최근 까지 약 550여명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200여개의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교도소를 방문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소자가 급증하여 샌드위치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시장에서 구입해 가야하는 형편이 될 정도였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마치 시장 한 복판에 들어 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혼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달 사이에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 됨에 따라 마띠 교도소의 재소자가 더 급증하여

저희의 방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혼잡할 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태국도 2003년경에 '탁신' 총리가 집권하면서 당시 3천명에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처형하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마약 관련 범죄가 두 배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접한 미얀마나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형편이고, 내외국인을 물론하고 마약에 관련된 범법자들을 극형에 처하는 인도네시아도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약의 뿌리는 깊고, 회복이 어려운가 봅니다. 주변국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많은 희생을 무릅쓰며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출 10:19)**

 2016년은 필리핀의 교육사에 매우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6-4-4 학제를 6-4-2-4학제로 변경한 첫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필리핀은 작년까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과정 '4'년, 대학 4년의 학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의 학제와 비교하면, 10학년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제 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타국에 비교하여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들의 '학력'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타국과 호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학제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무성했었는데, 마침내 금년에 전격적으로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Elementary School 6년, High School 4년, 그리고 'Senior High School 2년', College 4년의 학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제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그다지 철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10학년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Sr. High School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학교 시설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ih.park@gmail.com](mailto: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mailto:agnes.yjpark@gmail.com)



(필리핀 세부 교도소 - 한국일보, 7/31/2016)

특히 디고스에서는 기존 고등학교 시설로는 Sr. High School 학생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장소에 각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일 종합 Sr. High School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학제가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시설이 큰 인근 대학의 교실을 임시로 빌려서 주변의 고등학생들을 위탁하여 가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제의 대변동이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익핏 지역의 학원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익핏 지역은 디고스 내에서도 비교적 타 지역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더 어렵고,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부모나 주변 이웃들이 살아 온 것처럼, 학교 졸업 후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미래입니다. 작년까지 익핏 고등학교에서 매월 정규 채플 시간 외에 약 30여명의 학생들에게 별도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왔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모두들 밝고 적극적인 학생들이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활기가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까닭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디고스내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장학사역으로 인하여, 이 학생들도 내심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을 내고 있었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년 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선교 장학금 후원자들을 보내 주셔서, 저희 그룹의 모든 학생들이 인근 대학교로 진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중에,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학제가 갑자기 6-4-2-4로 최종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학교도, 또한 학생들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모두들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만 했고, 저희의 장학 사역도 수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10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로 예정된 학생들은 졸업이 아닌 '수료'가 되어, 인근 지역의 'Sr. High School'로 재배치 되었고, 의무 교육으로 인하여 별도의 학비가 필요치 않은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으로서 2년간을 더 공부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모두들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로 설립되는 Sr. High School이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곳에 신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만날 수 없지만, 조만간 신축이 되는 Sr. High School에서 흩어진 익핏 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 사역을 진행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장학생들을 '학교'에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로 정착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음화 사역을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이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지만, 작년에 건축된 디고스 예일 교회로 장학생 모두를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미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매주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단으로 섬기는 학생들도 있지만, 특별한 주일에만 얼굴을 비치는 학생들도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권면하는 중에 단점을 보완해가며 장학사역이 계속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 사역의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은 물론 제법 먼 지역의 부모들과 학생들까지도 디고스 예일 교회를 찾아와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인적 사항만 적어두고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제 변경으로 인하여 익핏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작년말까지 교회에 인적 사항을 남겨둔 부모와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교회 출석'을 약속하는 학생들 중에서 26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금년 초부터 선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학생들을 합하여 모두 61명의 대학생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장학금과 기도를 머금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눅 16:9)

그런데 금년도 벌써 한 한기를 보내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로운 형태로 정착하고 있는 장학 사역을 크게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출석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장학생은 물론, 지금까지 교회 출석율이 저조했던 기존의 장학생들까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덩달아 교회에 잘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년 이상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함께했던 학생들이라 항상 어리광을 받아줘야 했는데, 새롭게 참여한 장학생들과 함께하며 어느덧 믿음으로 앞장서는 학생들로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을 맴돌던 학생들이 각 부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하며, 봉사에 앞장 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부담이 많이 되지만, 마치 경쟁을 하듯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런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7월부터 두 분의 젊은 현자인 목사님이 디고스 예일 교회에 새롭게 합류하여 고등부와 대학부를 새롭게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건축이 완료되고 각종 교회 비품을 구입하는 중에, 예배당 의자를 도매상이 있는 다바오에서 일괄 구입하여 비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하게도 의자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차가 한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의자를 10개씩 추가 구입하여 다바오에서 디고스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의자를 사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당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벅찬 가슴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귀한 장학 사역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